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II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혼수 및 예물 비교-

홍 나 영(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이 은 진(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개화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화・산업화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인 혼례풍속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혼례문화의 일면인 혼수와 예단 부분에도 질적, 양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과거 유교사상 하에서의 혼례문화 특성이나, 일제시대 이후 변화된 혼례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근대화 과정 이후의 혼례문화변화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동을 가장 먼저 겪어 온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두 지역을 중심으로 혼수 및 예단 풍속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를 파악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로서,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선정은 임의적 표집방법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snowball sampl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적어도 해방 전부터 양가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던 가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당시에도 가족과 함께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던 여성이다. 연구시기는 결혼연도 기준으로, 이미 생존자를 찾기 힘든 1930년대 이전 시기는 제외하고 면접 가능한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10년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경상도 두 지역 모두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예단 및 예물의 양과 질이 점점 확대되고 고가화되었다. 50년대까지는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보내는 예단은 통상 신랑과 시부모님, 시형제의 범위까지 옷이나 소품 등 비교적 간소한 물품들이었으나, 60년대부터는 그 범위가 가까운 친인척까지 확장되었으며, 그 종류도 각종 보석류, 밍크코트, 현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화・고가화되었다. 둘째, 예단의 전달이 과거에는 신부 측에서 신랑 측으로만 이루어졌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수용된 남녀평등 사상이 정착되면서 양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과거 신부의 혼수로서 서울지역은 살림살이가 위주인 반면, 경상도 지역은 예단 중심으로 그 지역차를 알 수 있다. 통상 서울지역은 신부가 예단은 비교적 간소하게 하고 가구・가전제품류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경상도에서는 신부가 예단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주요 가구류는 신랑 쪽에서 준비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대화・산업화 이전에는 각 지역의 특징적인 혼례풍속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그 지역성은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통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각 지역 사이의 문화혼합을 야기하여, 점차 각 지역만의 지역성을 잃게 되었다.